#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하라"

##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우선협상 중단 강력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일이? 18번째 이야기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고 우선협상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6천억 원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며 "부안도 7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와중에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 지난달 2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보좌관이 구속되었고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 이유는 첫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고 둘째,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다는 것"이라 했다.

또한 "추가로 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환경이 달라졌고, 6월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목적부터 달라졌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공유수면 중 절대로 해당 용지의 '개발수요 및 압력이 낮지' 않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이미 포화상태인 새만금 산업단지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어 이제 '새만금 지구의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보다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째 2019~2020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해수유통과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었는데 하루 2번 해수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로 즉, 담수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이라며 "수상태양광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으로 '지반 약한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필요'하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지진 조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질 항목 조사는 공사 시 준설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영향 예측에 그쳤는데 그것도 문헌 자료 및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방법이었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송전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해수유통, 지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협의' 대상 즉, 내년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라며 "현재 상황으로는 군산시 등 지역주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가 선정된다 해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3개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최종선정이 오리무중이고 극적으로 9개 발전사업 시행사가 올해 안에 다 선정된다 해도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공동분담비용 문제, 한수원의 300메가와트(MW) 선개발과 동시 모니터링 실시가 또 기다리고 있어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도 내년 10월까지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효성중공업컨소시엄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번 기회에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군산 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1.2GW, 9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서 이뤄진다"며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카르텔과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는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20년 후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많이 늦을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 멈춰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큰 호응'

##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군산시보건소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6월부터 실시 중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접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이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록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등 대상포진 접종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절을 따라 발진 및 수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하며, 특히 여름철은 잦은 냉방기 사용으로 신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도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제외) 보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63-454-4950)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만경강 문화관에서 만나는 익산

## 20일 마룡이 티셔츠 만들기 체험… 12일까지 선착순 모집

익산에도 후텁지근한 장마가 찾아왔다.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쏟아지는 빗줄기에 바깥 활동은 엄두가 안난다면 실내 체험과 전시가 준비된 익산 만경강문화관에서 주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2022년 3월 개관한 익산만경강문화관은 만경강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주제로 삼아 꾸며진 전시·체험 공간이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유의 문화와 변천사 등 지역이 품어 온 내밀한 이야기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1관 역사관에서는 신석기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까지 흐름에 따른 만경강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2관 자연관은 만경강의 생태와 자연을 주제로 이뤄진 곳이다. 자연관에 들어서면 만경강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상호작용 체험인 '만경강의 야행'은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닥에 발을 구르며 가상 공간에 물결을 만들고 물고기도 잡아볼 수 있다.

3관 문화관에서는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연이 넘치는 자전거도로 등 현재의 만경강을 보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실내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가상 패러글라이딩으로 만경강 자연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도 준비돼있다.

현재 문화관은 익산시 관광 마스코트 '마룡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수업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모집은 오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만경강문화관(063-859-768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강화

##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 … 8~9월 신청·접수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지원 시범사업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약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3.0% 지원해 왔으나,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1.5~2.0%의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0%의 추가 지원율이 적용된다.

익산시는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1.0~3.0% 대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1억 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타시군에서 주소를 유지하고 익산시로 전입하는 45가구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익산시 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주택과(063-859-55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자 추이와 효과성을 분석해 내년도 사업 내용을 보강하고 사업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익산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에 나섰다.

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 북부시장과 익산장 내 21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부스는 북부시장 내부 중앙 로비에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어장 황폐화 주범 불가사리 퇴치 앞장

군산시가 어업 활동과 패류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퇴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불가사리는 연안해역에 서식하면서 천적이 없는 바다의 해적생물로 전복, 해삼, 바지락 등 수산자원을 포식하는 한편 번식력이 뛰어나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어업인 소득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4억 원을 들여 나잠어업(해녀), 잠수부 및 허가 어선의 통발, 패류형망 등으로 구제된 불가사리를 1kg당 1,400원에 수매해 200여 톤을 구제할 계획이다.

수매한 불가사리는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유기질 비료 또는 친환경제설제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곤란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돈을 들여 폐기처리했던 불가사리를 농업용 비료나 친환경제설제로 자원화함으로써 처리비용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